

OECD 국가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변화와 과제

: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를 중심으로

태정림 부연구위원
김민경 부연구위원

CONTENTS

I. 개관	1
① 연구배경	1
② 연구방법론	2
II. OECD 국가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시기별 변화	4
① 개관	4
② 성과계획 단계	5
③ 성과측정 및 평가 단계	8
④ 성과정보 활용 단계	9
⑤ 기타	12
III. 결론 및 시사점	15
참고문헌	17

연구 요약

연구 요약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도구로서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은 보다 확대될 전망
 - 본 보고서는 2007년부터 실시된 OECD의 성과예산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둘러싼 제도적·정책적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 OECD 회원국 뿐만 아니라 파트너국을 포함한 시계열 자료 구축·분석을 통해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적인 추세와 정책적 함의 발굴
 - 분석 결과 OECD 국가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초기 비공식-분산형 방식에서 시스템에 기반한 표준화-디지털화 단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성과정보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활용
 - 성과정보와 예산배분의 연계에 대한 관심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수준의 제도화는 관찰되지 않음
 - 각국은 성과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재무정보관리 시스템(FMIS) 등 IT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인 모습
-

1. 연구 배경

□ OECD는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예산편성 의사결정 모든 과정에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

-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NPM) 등장과 함께 공공부문의 결과중심 관리의 일환으로 소개되어 200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확산

〈표 1〉 Google 학술검색(Scholar)으로 살펴본 “공공부문 성과예산제도” 트렌드

(단위 : 건수)

1960-70	1971-80	1981-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2021-2025
5,040	12,900	17,600	19,700	26,300	22,400	17,100

주: Google scholar, Public sector performance budgeting 키워드에 대해 모든 언어 및 유형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별 발간 건수를 검색한 결과('25. 11. 11. 검색 기준)

□ 최근 전세계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출효율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

- IMF(2025)는 2029년 전세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출의 질을 개선하고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와 지출 검토를 예산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용을 권고

□ 한국은 재정성과관리의 모범국으로 평가되지만,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형식화, 성과-예산연계 등 개선과제도 상존

- OECD(2022)는 한국의 성과예산 시스템의 수준이 매우 높지만, 재정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의 성과-예산간 연계 필요성을 제시

□ 이에 OECD 성과예산 관련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연구방법론

□ OECD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성과관리 예산제도 관련¹⁾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성과관리 예산 관련 질문에 대한 국가별 응답을 통해 시간적 변화를 분석

- (데이터)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및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중 성과정보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다음 <표 2> 참조)
- (시간적 범위) 2007년, 2011년, 2016년, 2018년, 2023년
- (조사국가) OECD회원국 및 일부 파트너국
- (응답자 정보) OECD회원국 중앙예산기관 고위 담당자

□ 비교가능성이 높은 OECD 경제블록 내 국가별 중장기(2007년~2023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적 수렴과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

- 분석에 사용한 5개년도 설문 자료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정착-성숙-재구조화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시계열 정보에 해당
- 단, 연도별로 국가 수(OECD 회원국 외에 파트너국 포함)와 설문 문항의 변동이 존재하여 분석 주제별로 설문문항을 범주화하여 응답값을 수치화하고, 주관식 답변을 질적분석 요소로 추가
 - (분석 주제) OECD 설문문항별 의도·주제에 따라 ①성과계획 수립, ②성과측정및 평가, ③성과정보 활용(환류), ④기타로 분류
 - (분석 방식) 공통된 설문문항에 대한 국가별 공식응답을 ‘응답빈도’ 또는 ‘활용 국가 수’로 계량화하고, 시간적 변화를 분석

1) OECD 회원국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 예산제도(PB) 시행에 있어 나타나는 관행과 과제 파악을 목적으로, OECD 회원국 중앙예산기관의 재정성과관리 제도 운영자를 대상으로 각국 성과관리 체계의 기능과 역량, 구조, 특성, 당면 과제 등을 조사

〈표 2〉 OECD 성과관리 예산제도 관련 주요 보고서 현황

연도	보고서명	조사대상 국가 수	주요 질문항목
2007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OECD 회원국+파트너국 (38개국)	예산조직, 법적체계, 다년도 예산편성, 성과목표, off-budget, supplementary budgets
2011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OECD 회원국 + 파트너국 (36개국)	성과예산체계, 성과정보, 평가기제 및 Spending Review, 예산재배분
2016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OECD 회원국 + 파트너국 (40개국)	국가 성과예산체계 및 핵심지표, 감사원 역할, IT 시스템, 평가 및 Spending Review, (특집) EU 기금
2018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OECD 회원국(34개국)	성과예산제도 법적 기반, 운영주체 및 지침, 크로스컷팅 indicators, 평가 및 Spending Review, 도전과제
2023	Performance Budgeting Framework	OECD 회원국(38개국)	성과예산제도 실행, program budgeting, 성과정보유형, 회계책임성, 의회 역할, IT, 유인체계와 도전과제
2015	Government at a Glance 2015	OECD 회원국 + 파트너국 (약 35개국)	성과지표 유형(투입·산출·결과), 성과정보의 정책 반영
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회원국 + 파트너국 (약 35개국)	성과예산 프레임워크 존재 여부, 성과 목표 설정 방식
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OECD 회원국 + 파트너국 (약 36개국)	성과정보와 예산 협상 연계, Spending Review 활용 여부
2021	Government at a Glance 2021	OECD 회원국 + 파트너국 (약 37개국)	성과예산의 ICT 도구 활용, 성과정보의 투명성·책임성
2025	Government at a Glance 2025	OECD 회원국 + 가입 후보국 (약 38개국)	성과예산 활용 현황, 국가별 비교, 성과정보의 정책·예산 반영 정도

주: 도표로 정리한 OECD 보고서는 성과관리 예산제도 관련 설문조사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 관련 비중이 높은 보고서임. 동 리포트는 음영으로 표기된 설문조사 보고서의 질문을 지표화하고, 이에 대한 응답값을 분석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였음

Ⅱ OECD 국가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시기별 변화

FIS 재정리포트

OECD 국가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변화와 과제

1. 개관

□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1960년대부터 존재했으나, 1980년대 재정효율화 필요성에 따라 재도입된 후 1990년대에는 결과중심 성과관리 패러다임 도입과 함께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 OECD(2019)는 성과주의 예산을 정부 성과관리의 플랫폼으로 규정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다양한 예산(재정) 데이터와 정책성고가 모이고 공유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
- 이때 성과정보는 입법자와 국민에게 지출의 목적과 달성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산과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대체로 성과정보는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정책 우선순위 재편, 사업축소/확대 등의 의사결정시 근거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단순한 성과지표 관리가 아닌 ‘목표설정 → 실적 관리·수집 → 측정·평가 → 예산반영’으로 연계되는 유기적 과정

- 이를 감안하여 각 연도 OECD 설문문항 중 다음 주제에 속하는 질문을 분류한 후 ‘응답 빈도’ 또는 ‘활용 국가 수’를 집계
 - ① 성과계획(Planning): 목표 설정 및 책임의 정의, 성과지표 설계와 벤치마크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단계
 - ② 성과측정 및 평가(Measurement & Evaluation): 계획한 목표 대비 달성도를 측정·분석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고려하는 단계
 - ③ 성과정보 활용(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예산배분 및 조정, 사후관리 등 환류 측면에서의 성과정보 활용 단계

2. 성과계획(Planning)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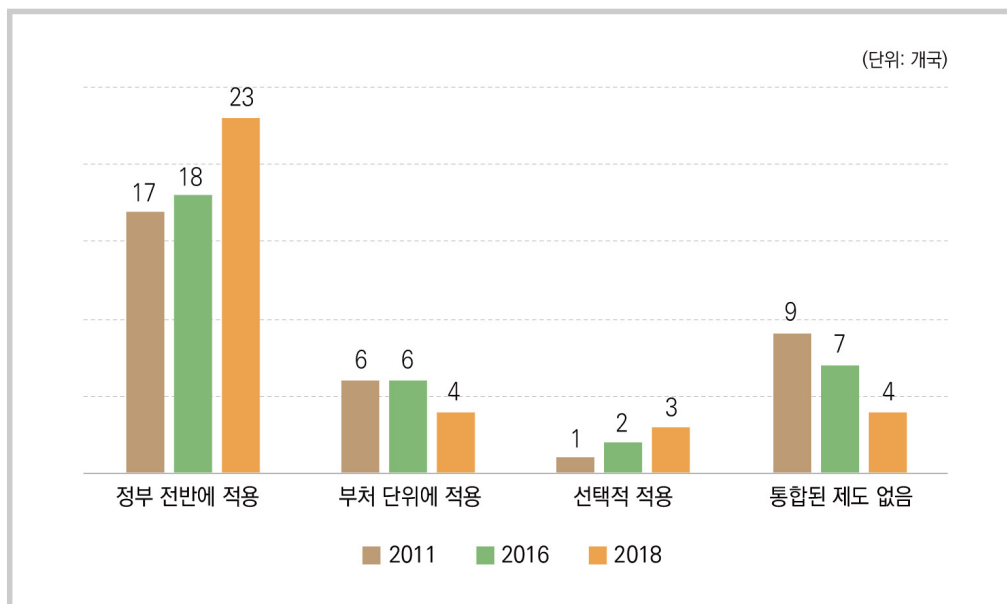
□ 성과계획 단계는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에 대한 책임, 성과지표 설계 및 목표치 설정 등이 주로 포함됨

- OECD 설문조사 중 성과계획 수립과 관련성이 높은 질문 문항 중에서 시계열로 연결가능한 주요 질문을 추출하고, 응답결과를 집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중앙정부 전 부처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2011년, 2016년, 2018년)

- OECD 국가들은 '11년~'18년 사이에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부처 단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전체 정부 차원의 성과예산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고, 이는 성과계획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음 의미

〈그림 1〉 성과관리 예산제도 적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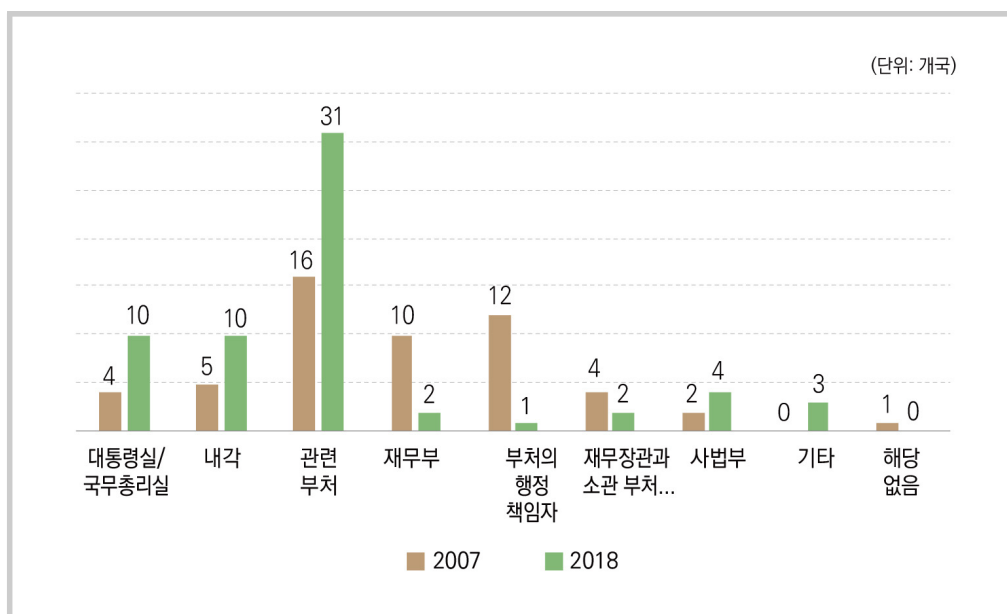


2) Does your country have in place a standard performance budgeting framework which is applied uniformly across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 둘째,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³⁾?”(2007년, 2018년)

- 성과목표 설정 책임도 다수 국가에서 부처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목표 설정권한이 정책 집행 조직에 연동되고 있음을 시사
- 목표설정이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관리에서 개별 부처단위의 자율적 활동 단계로 정착된 것으로 해석 가능

〈그림 2〉 성과 목표 설정 책임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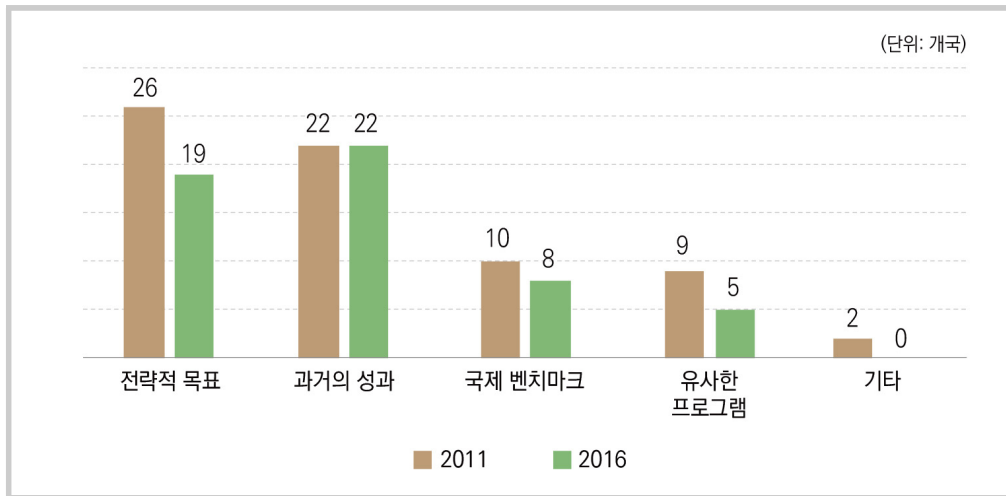
□ 셋째,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해당 목표는 주로 어떠한 기준(benchmark)에 근거하여 설정 됩니까⁴⁾?”(2011년, 2016년)

- 성과목표 설정 시, 과거실적과 국제 벤치마크, 전략적 목표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거 성과 기반설정이 다수라는 점에서 성과계획의 품질 제고 측면은 과도기임을 시사

3) Who has responsibility for setting performance targets?

4) When setting performance targets, against what benchmark(s) are they generally set again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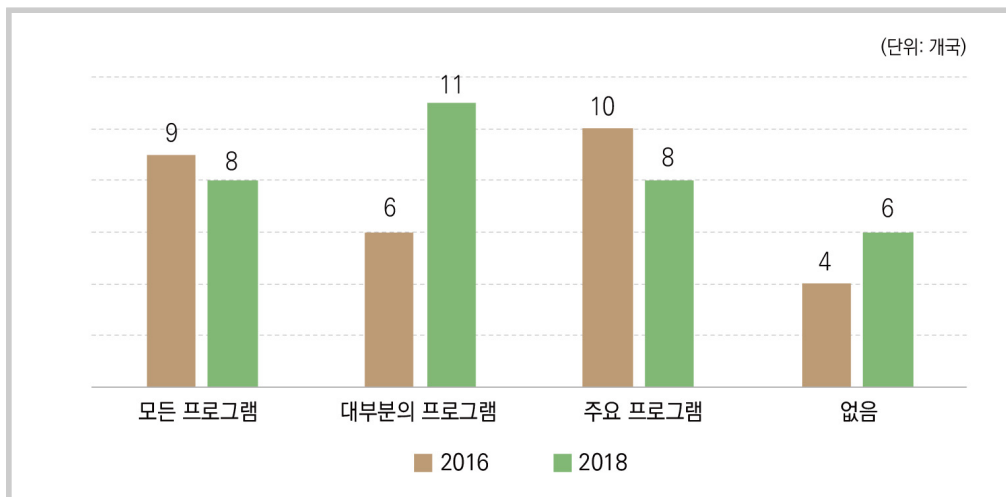
〈그림 3〉 성과목표 설정의 기준



□ 넷째, “정부는 성과목표를 제도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⁵⁾?”(2016년, 2018년)

- 일부 주요 프로그램에만 설정되었던 성과목표가 점차 대부분의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응답 증가, 성과계획이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장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
- 성과계획 단계의 성과목표의 기준과 범위, 책임이 정부 전체와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

〈그림 4〉 성과목표 설정 수준



5) Does your government set performance targets?

□ **종합하면 성과계획 단계에서는 “성과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benchmark)”, “누가 책임지며(responsibility)”, “실제로 정부가 성과목표를 운영하는지(existence)”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문**

- 목표 설정의 기준과 절차, 책임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성과계획의 질과 체계성 파악 가능
- 성과계획이 단순한 목표(goal) 제시가 아닌 명확한 기준에 기반한 설정과 제도적 배경 확보, 책임주체 명시로 구성된 체계적 절차임을 시사

3. 성과측정 및 평가(Measurement & Evaluation) 단계

□ **‘성과측정 및 평가’ 단계는 성과측정 관점에서 성과정보의 수집·전달 방식을 확인하고, 성과정보의 생산 및 활용 주체 파악, 성과정보의 품질관리 등을 주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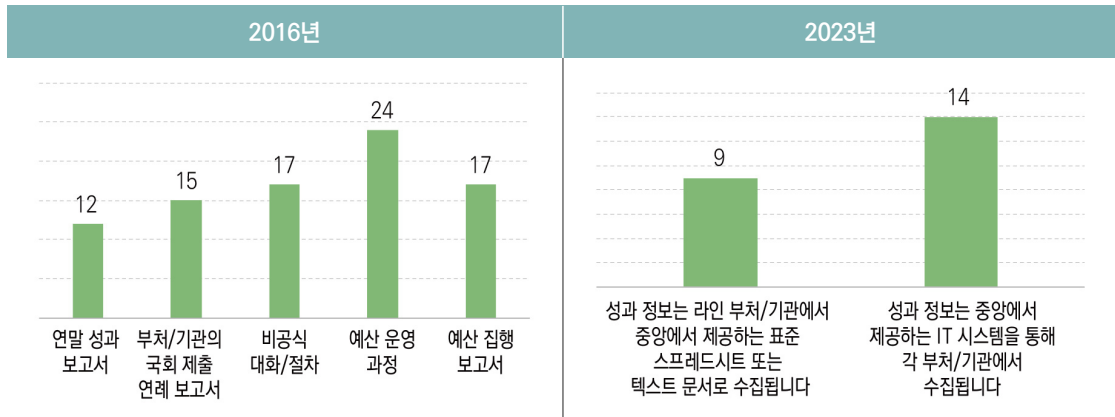
- 앞선 ‘성과계획’ 단계와 동일하게, OECD 설문 중 성과측정 및 평가와 관련성이 높은 질문 문항 중에서 시계열로 연결가능한 주요 질문과 응답결과를 집계하고, 시사점을 도출

□ **“성과정보가 일선 부처에서 중앙재정당국(CBA)으로 어떻게 수집/전달됩니까?” (2011년, 2016년, 2018년, 2023년)**

- 성과정보의 전달·수집방식은 2011년 비공식·분산형 체계에서 2016년~2018년 공식·체계화를 거쳐 2023년은 표준화·디지털화로 수렴
 - 2011년만 해도 성과정보 수집/전달 방식에 대한 국가별 응답은 “별도 정책·절차 없음”, “내부 체계 없이 의회 및 감사원 등 외부 채널에 의존”, “비정기적 전달”, “일부 분기별 데이터 요약” 등 일관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비공식·분산된 형태로 운영
 - 이후 2016년의 경우 다양한 성과 관련 보고서가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예산운영 과정내에서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관찰됨
 - 최근 2023년은 IT 기술 보급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성과정보 수집 체계가 구축되었고, IT 시스템 보급을 통한 실시간 수집·관리 단계로 진화

〈그림 5〉 성과정보의 전달 방식 변화

(단위: 개국)



4. 성과정보 활용(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단계

□ ‘성과정보 활용’ 단계는 측정·수집한 성과정보를 예산배분 및 조정에 반영하거나, 사후관리에의 환류 등 성과정보의 활용도와 연관

- OECD는 성과정보 활용 단계에서 ‘성과 달성 또는 미달성시 발생하는 결과⁶⁾’, ‘성과정보의 활용 용도⁷⁾’, ‘성과예산제도의 효과/영향⁸⁾’에 대해 주로 질문

□ 첫째, “각 부처/기관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2011년, 2016년, 2018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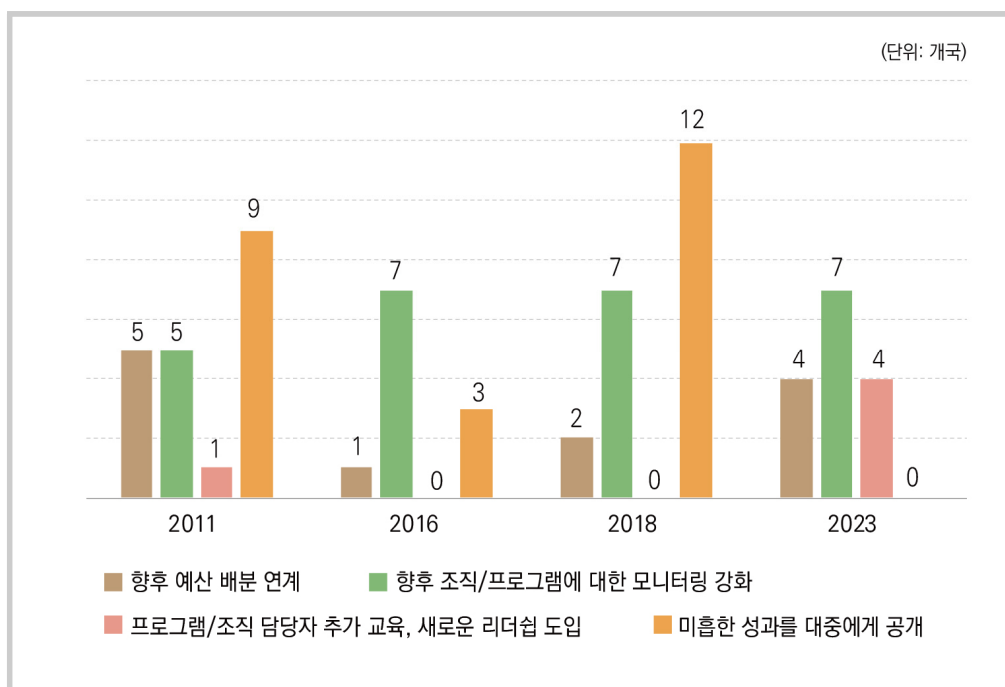
-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후속 환류 방식에 대한 질문은 2011/2016/2018/2023년 모두 실시될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주제
- 다만, 시기별로 성과달성도와 예산배분간 연계 수준은 비일관적인 모습. 2011년 대비 2016년과 2018년은 연계강도가 다소 약화되었다가 최근 2023년 다시 반등하며 재활성화 추세

6) What consequences do line ministries/agencies face if performance targets are not met?

7) How often do the Central Budget Authority(CBA) and line ministries utilize the following kinds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their budget negotiations?, To what extent are different types of performance information used in budget negotiations between the CBA and line ministries?

8) To what extent has performance budgeting resulted in positive or negative changes in the following aspects of budgetary management?, Hav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s and processes contributed to improved quality of public finances in your country?, Policy impact: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그림 6〉 성과목표 미달성시 환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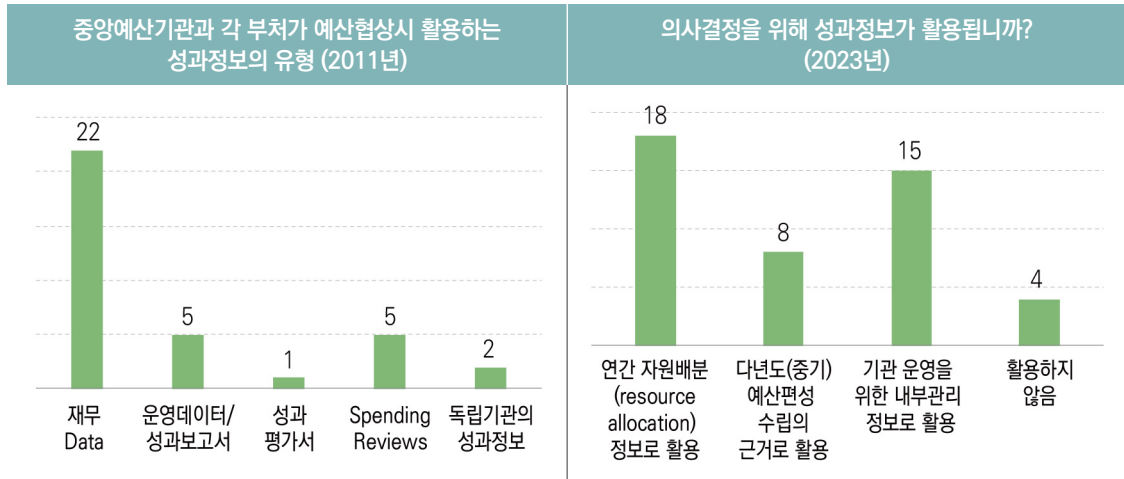
- 그러나 성과정보와 예산간 연계 등 환류 방식은 앞서 살펴본 성과계획 수립 또는 성과정보 측정·수집 단계와 달리 국제적으로 통일된 수준의 제도화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
- 다만, 사후 모니터링은 성과미흡 또는 미달성시 지속적인 관리 수단으로 제도화되었고, 최근 2023년에는 성과 미달성의 원인을 조직 내부 역량의 문제로 인식하고 추가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환류도 등장

■ 둘째, “중앙재정당국의 예산협상 또는 의사결정시 성과정보가 활용됩니까?”(2011년, 2023년)

- 성과정보 활용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조사되는 주제이며, 지난 10여 년간 성과정보 활용 수준은 2011년 재무데이터(예산집행/회계정보) 수준의 활용에서 2023년 연간 자원배분 및 부처 내부관리에 활용되는 수준으로 발전함

〈그림 7〉 성과정보의 의사결정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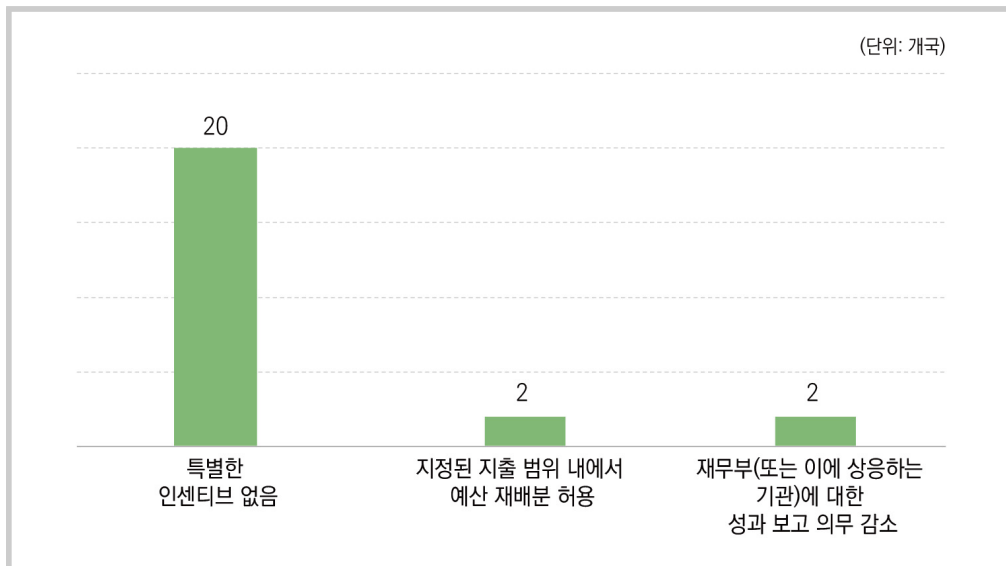
(단위: 개국)



- 한편 2023년에는 성과정보 활용 항목 중 지출구조조정(Spending review) 관련 답변 항목이 제거되는 대신 성과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활용 여부에 대한 설문이 실시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제한된 범위에서 예산 재배분을 허용(에스토니아, 스위스)하는 사례도 존재

〈그림 8〉 공공부문 성과예산 편성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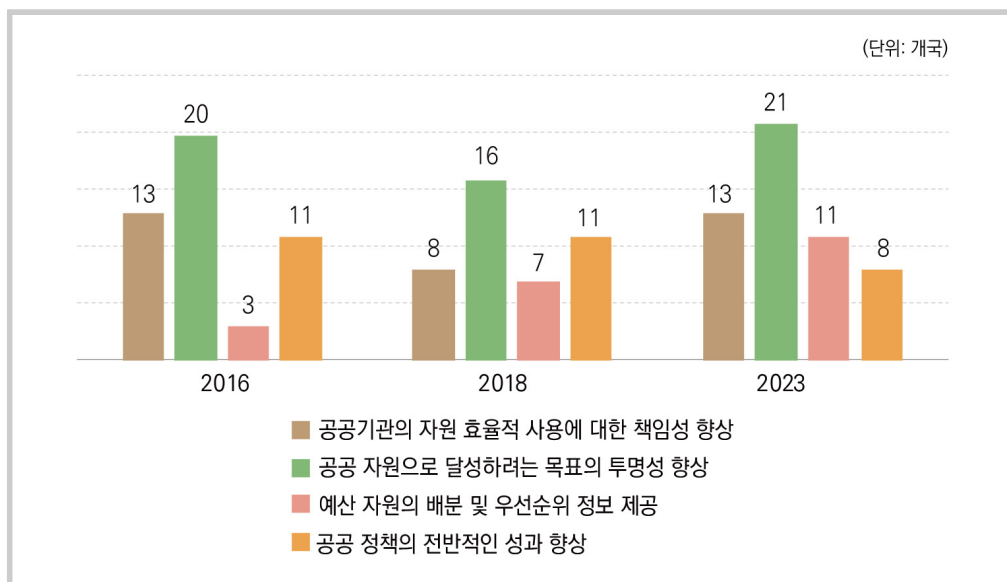
(단위: 개국)



□ 셋째, “성과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2016년, 2018년, 2023년)

- 성과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서 2016년~2023년 공공부문의 투명성 향상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정책 책임성 제고 및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성과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응답
- 한편, 성과예산제도가 예산배분 및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국가는 2016년 3개국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1개국으로 증가

〈그림 9〉 성과예산제도의 효과성 및 영향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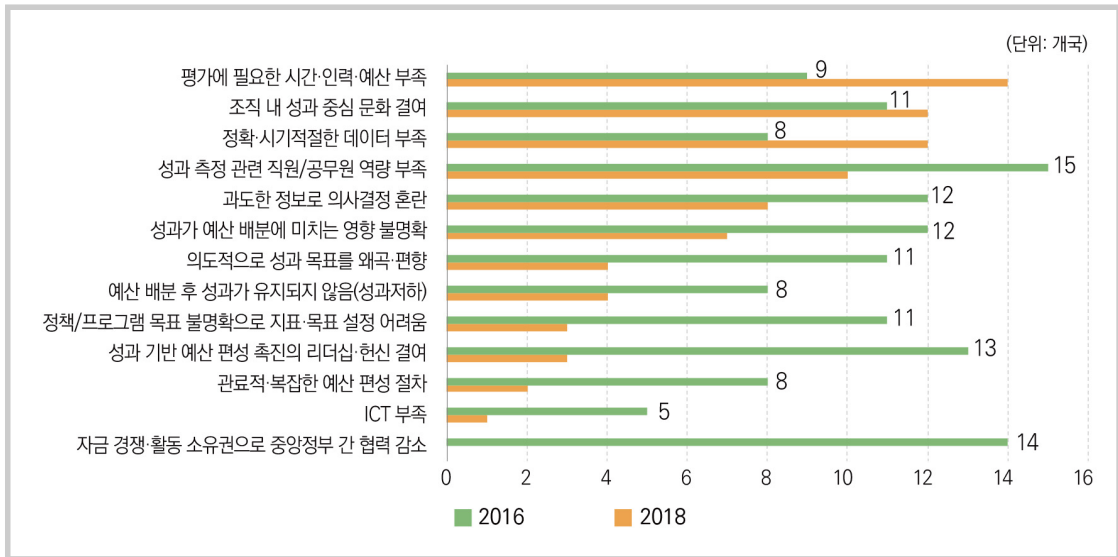
□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한계와 도전과제(potential challenges to performance budgeting)”에 관한 질문은 연계적으로 실시⁹⁾

- 2011년의 경우 성과예산제도의 잠재적 도전과제를 설문하고, 2016년과 2018년은 성과예산제도의 효과적 실행과 관련하여 잠재적 도전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

9) ('11) Rate each of the following potential challenges to performance budgeting on a scale of 1 to 5., ('16 및 '18)
Rate each of the following potential challenges to effectively implementing performance budgeting

- 2016년 대비 2018년 응답을 비교하면, (증가 요인) 경쟁으로 인한 협력 감소, 성과기반예산 리더쉽 결여, 정책목표 불명확 등, (감소 요인) 정확·시기적절한 데이터 부족, 평가에 필요한 자원 부족, (상존과제) 공무원 등 역량 부족, 성과-예산 연계 불명확,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혼란

〈그림 10〉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한계와 도전과제



□ 끝으로 IT기술의 진화·발전과 함께 초반 성과관리 관련 웹사이트 존재 여부를 묻던 질문에서 최근에는 IT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보유 및 재무정보와의 연계를 묻는 수준으로 발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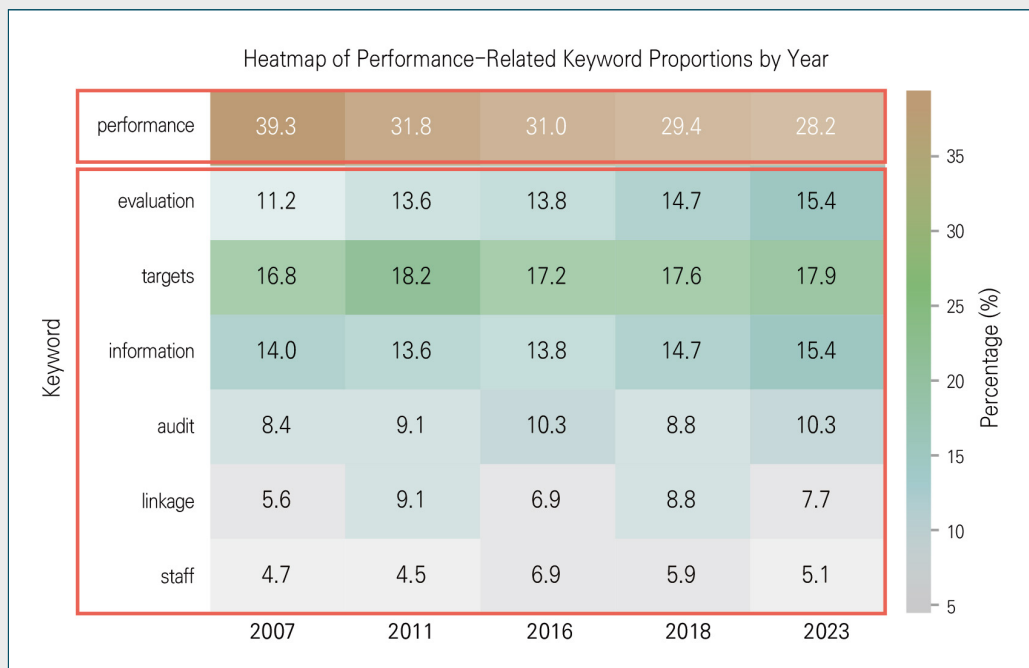
- ('11) 성과평가 수행과 관련된 웹 사이트 존재 여부 설문
- ('16) 일선 부처 또는 정부 전체에 적용되는 성과관리 관련 IT 시스템 구축 여부 설문
- ('23) 중앙정부에서 제공되는 IT 시스템에 성과정보와 재무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 설문

[참고] OECD 성과예산제도 설문 키워드로 보는 정책 트렌드(Trend)

동 보고서의 분석에 사용한 5개년 OECD 설문조사 문항에서 추출한 주요 키워드의 비중 변화를 히트맵(heatmap)으로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히트맵은 특정 키워드의 비중 변화를 가시화함으로써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정책 트렌드 변화를 직관적으로 제시함
- 핵심 키워드인 '성과(performance) 또는 성과정보' 비중은 2007년 39.3%에서 2023년 28.2%로 감소한 반면, '평가(evaluation)', '감사(audit)' 키워드 비중은 확대됨
 -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단계를 지나 성과평가, 성과감사 등 성과정보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
 - 한편 성과-예산간 연계(linkage)에 대한 관심은 시기별 편차가 있고, 인적·조직적 기반(staff) 또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음

[그림] OECD 설문조사 주요 키워드 비중 변화(히트맵 분석)



자료: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OECD 회원국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된 후 초반 비공식적·분산적 제도 운영 방식에서 중앙 정부를 통한 표준화·체계화방식으로 전환된 후 최근 IT 시스템을 통한 FMIS 성과관리 단계로 진화

- (성과정보 관리 진화) OECD 국가의 성과정보는 초기 비공식적이고 분산적인 수집·전달 방식에서 최근 표준화·IT 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전달 방식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전환
 -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간 부처 성과정보 수집·관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성과정보 데이터가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
- (성과계획 및 목표 설정의 확대) 성과계획의 기준과 범위, 책임이 정부 전체와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장되고, 성과목표 설정의 권한이 정책 집행 조직에 연동되는 경향
- (성과측정 및 평가의 체계화) 성과정보의 평가와 수집 방식이 표준화되고, FMIS를 활용한 재정과 성과정보의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체계화된 성과관리 형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성과정보의 예산 연계 및 활용) 성과정보와 예산배분의 연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수준의 제도화에는 도달하지 못한채 시기적으로 연계 강도의 변화를 보임. 다만, 성과정보의 정책·예산 반영 정도와 의사결정 활용은 여전히 OECD의 높은 관심을 받는 주제에 해당

□ 향후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성과-예산연계에 대한 정책 목표 수립) 효율적 재정운용 관점에서 성과정보와 실제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시도할 경우 연계 여부 및 수준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동기부여 방안을 함께 제공할 필요
- (일선 조직의 성과문화 내재화) 공공부문의 성과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조직 성과관리 역량 강화, 인센티브 연계 등 내재화 전략 필요
- (디지털,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고도화) 국제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FMIS 등 IT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성과정보 수집·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추세
 - 향후 중앙 FMIS 시스템을 통해 성과정보 표준화, 중복 데이터 제거 등 성과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성과분석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도 요구됨

- (성과정보 투명성 확대 및 성과정보 품질 제고) 예산 및 성과정보의 시민 접근성 확대와 국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전반적인 성과정보 공개 수준은 제고하되, 과도한 정보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과정보의 품질 제고도 병행할 필요

참고문헌

- 박노옥(2006), “OECD 국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OECD 국가들의 예산제도 비교 I (정책분석 14-05)
- OECD(2007).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 OECD(2011).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 OECD(2012).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 OECD(2015). Government at a Glance 2015.
- OECD(2016).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 OECD(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 OECD(2018).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 OECD(2019). OECD Good Practices for Performance Budgeting.
- OECD(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 OECD(2021). Government at a Glance 2021.
- OECD(2022). OECD Economic Surveys:Korea 2022.
- OECD(2023a). OECD SBO Survey on Budget Frameworks.
- OECD(2023b). OECD Survey on Performance Budgeting, results for 33 countries.
- OECD(2025). Government at a Glance 2025.
- IMF(2025), Fiscal Monitor: Spending Smarter: How Efficient and Well-Allocated Public Spending Can Boost Economic Growth.

FIS 재정리포트 25-05

OECD 국가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변화와 과제 :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를 중심으로